

화학연구원, 이규호 박사 영년연구위원 임용

한국화학연구원은 신화학연구단 책임연구원인 이규호(55) 박사를 정년까지 안정적 연구환경을 보장해주는 영년직 연구위원으로 임용했다.

이규호 박사는 20년 동안 분리막 및 분리막 반응기, 분리막 다기능화 연구 등 분리막 분야에서 창의적 연구 활동과 기술개발로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고 국제 공동연구와 학-연 석·박사 과정 등을 통한 분리막 분야 인력양성에도 크게 기여했다.

화학연구원은 2004년부터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원에게 정년까지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해주는 영년직 연구위원 임용제도를 운영해 이규호 박사를 포함 4명을 임용했다.

<화학저널 2007/06/19>